

朱子の 厲鬼論

박 성 규*

-
- | | |
|---------------|------------------|
| 1. 머리말 | 3. '괴이현상'에 대한 설명 |
| 2. 厲鬼의 '괴이현상' | 4. 맺음말 |
-

1. 머리말

儒家는 제사, 즉 살아남은 자가 존재의 시원에 대한 보답을 표현하는 일(報本反始)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론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행해야 할 분명한 인간의 도리로 여긴다.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敬鬼神而遠之)”, “제사를 모실 때는 마치 옆에 계신 듯이 모셔라(祭如在)”라는 孔子의 말은 바로 유가의 귀신관과 제사관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귀신관·제사관은 그후 천여년 동안 유가의 견해를 대표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던 것이 宋代에 이르러, 특히 송대의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완성시킨 朱子가 제사를 논하면서 제사 대상인 “귀신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주자의 귀신론은 “귀신은 조화의 자취이다”라는 程伊川의 명제와 “귀신은 두 기의 良能이다”라는 張載의 명제를 기반으로 전개된다.¹⁾ 주자는 여기에 “鬼는 歸이고 神은 伸이다”라는 어원학적 풀이와, 또 “만사만물은 오직 이 음양의 消息屈伸일 뿐이다”라는 통찰을 연결시켰다. 소식굴신 내지 屈伸往來는 음양 두 기의 본래적인 기능, 즉 양능이며, 곧 鬼와 神의 함의가 된다. 즉 屈(消)은 鬼, 伸(息)은 神, 往은 鬼, 來는 神에 대응된다. 결국 만물의 생성·발전·변화 전 과정의 두 측면이 귀와 신이 된다. 그러므로 귀신은 세속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²⁾

* 필자: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

- 1) “鬼神者, 造化之迹也.”(『二程集』, 중화서국, 705쪽) “鬼神者, 二氣之良能也.”(『正蒙』「太和」, 『張載集』, 중화서국, 9쪽) ※ 이 두 명제는 『근사록』에 들어 있는 귀신 관련 단 두 구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中庸章句』 鬼神章(제16장) 해석에서도 이 두 명제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다음 주자는 “기가 모이면 생기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는 死生의 대원칙 하에, 一物(특정 사람 혹은 사물을 닮은, 유형 무형의 존재)로서의 귀신 관념을 배격하고, “사람이 죽으면 곧 전부 흩어져 없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귀신에 대한 주자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불교의 윤회설 비판을 염두에 두고 도출된 것이었다. 귀신은 조화의 자취 내지 음양의 양능인 만큼 결코 일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람은 죽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³⁾는 윤회설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매우 이지적이어서 이것은 주자 철학의 전반적인 기조와도 부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제사를 설명하면서 “자손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조상의 기가 感하여 이르게 할 수 있다(祭祀感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주자 귀신론의 이지적인 측면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厲鬼의 존재에 대한 그의 인정이다. 그는 세속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귀신불”, “귀신 울음소리”)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귀신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주자 철학의 기조인 이지적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여귀에 대한 주자의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厲鬼의 ‘괴이현상[怪]’

주자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곧 전부 흩어져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으면 기가 흩어져 아주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도리가 그런 것이다.⁵⁾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氣가) 저절로 없어진다. 언제 요순이 귀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⁶⁾

매우 이지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매우 곤혹스럽게도 주자는 “괴이한 현상들[怪]”,⁷⁾ 즉 세

2) 『朱子語類』(이하 『語類』) 3:12 “鬼神死生之理, 定不如釋家所云, 世俗所見. (…)” (54~56세)

3) 『語類』 3:19 “(…) 釋氏卻謂人死爲鬼, 鬼復爲人. 如此, 則天地間常只是許多人來來去去, 更不由造化生生, 必無是理. (…)” (59 이후)

4) 그리하여 주자 귀신론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주자의 귀신론에는 “신비성이 잔류한다”(友枝龍太郎, 『朱子の思想形成』, 春秋社, 東京, 1979), “종교의 영역이 되었다”(三浦國雄, 『朱子と氣と身體』, 平凡社, 東京, 1997),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姜廣輝, 『理學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4)는 등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語類』 3:41 “死而氣散, 泯然無跡者, 是其常. 道理恁地. (…)”

6) 『語類』 3:40 “(…) 安於死者便自無, 何曾見堯舜做鬼來!”

7) ‘怪’는 이른바 “物怪神姦”의 의미이다. 物怪: 괴이한 사물. 神姦(神奸) 혹은 物怪神姦: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귀신이나 괴이한 사물.

속에 떠도는 귀신 이야기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朱子語類』의 다음 내용을 보자.

옛날 어떤 사람이 淮水를 밤에 건너고 있었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수많은 形象을 보았다고 한다. 분주하게 서로 치고 받으면서, 강변 양쪽에서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는 그것이 분명 귀신이라고 여겼지만 별 도리 없이 그것들을 뛰어넘고 부딪치고 그 밑을 지나가야 했지만, 다만 아무런 장애는 없었고 다른 일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은 바로 옛날 전쟁터였다. 그 귀신들은 모두 비명에 죽어 원한을 품었을 것이니, 그들의 기가 흩어지지 못한 것도 당연했다.⁸⁾

“마을에 李三이라는 자가 죽어 여귀가 되자, 마을에서는 제사나 불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그 사람 몫을 차렸습시다. 만약 황록제를 지낼 때 그의 몫을 차리지 않으면 제사 음식이 모두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그 여귀가 붙어 있던 나무를 불살라 버리자, 마침내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그가 억울하게 죽어 기가 채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폭죽 때문에 놀라 흩어지게 된 것이다. (...)”⁹⁾

주자는 이와 같은 종류의 귀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사람이 익사하고, 살해되고, 급병사하고, 형벌로 죽고, 분하여 죽고, 전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죽게 되면 그 氣가 흩어지지 못하고, (사람에) 빙의하여 재앙을 초래하는 등 “괴이 현상怪”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자어류』의 내용을 보자.

“사람이 죽어도 기가 흩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스로 형벌을 가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해친 사람의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다시 그의 精과 神이 모일 수 있다. (...)”¹⁰⁾

(程子の 말) ‘伯有가 여귀가 된 일이 별도의 하나의 이치이다’ 함은, 사생의 정상적인 이치 [常理]는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은 죽으면 기가 흩어지는 것이 이치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백유는 (생시에) 권세가 막강하여 精을 많이 소모했고, 가문도 융성했지만, 억지로 죽었기 때문에 그 기가 흩어지지 않은 것이다.¹¹⁾

- 8) 『語類』 3:19 “昔有人在淮上夜行，見無數形象，似人非人，旁午克斥，出沒於兩水之間，久之，纍纍不絕。此人明知其鬼，不得已，躍跳之，衝之而過之下，卻無礙。然亦無他。詢之，此地乃昔人戰場也。彼皆死於非命，銜冤抱恨，固宜未散。” …
- 9) 『語類』 3:19 坐間或云：“鄉間有李三者，死而爲厲，鄉曲凡有祭祀佛事，必設此人一分。或設黃籙大醮，不曾設他一分，齋食盡爲所污。後因爲人放爆杖，焚其所依之樹，自是遂絕。” 曰：“是他枉死，氣未散，被爆杖驚散了。…”
- 10) 『語類』 3:40 問：“有人死而氣不散者，何也？” 曰：“他是不伏死。如自刑自害者，皆是未伏死，又更聚得這精神。(安於死者便自無，何曾見堯舜做鬼來!)”
- 11) 『語類』 3:42 “伯有爲厲之事，自是一理，謂非生死之常理。人死則氣散，理之常也。它卻用物宏，取精多，

“세속에서 말하는 物怪神姦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단하면 좋습니까?”

“세속의 귀신 이야기 중 대체로 8할은 엉터리이지만, 2할은 역시 그 까닭이 있다(二分亦有此理). 비명에 죽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하고, 급병으로 갑자기 죽기도 한다. 이 경우는 그 사람의 氣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까닭에 것처럼(산 사람에게) 붙어 의지하게(憑依) 되는 것이다. 또 갑자기 죽은 다음 氣가 아직 消盡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가 당초에 품수받은 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시간이 지나면 역시 소진된다.”¹²⁾

여기서 주자는 이러한 괴이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정상적인 이치[常理]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도 “까닭은 있다[有理]”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여귀가 되고 ‘괴이현상’을 발생시키는가? 주자는 이런 의문에 대하여 혼백 개념을 빌어 설명을 시도한다. 먼저 사람의 탄생과정과 혼백의 의미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보자.

천도가 유행하여 만물을 발육하니, 理가 있고서야 氣가 있다. 동시에 리와 기가 있지만, 결국 리가 주가 되니, 사람은 그것을 얻어서 태어난다.〈明作: ‘그러나 기에는 청탁이 있다.’〉 氣가 운데 맑은 것은 氣가 되고 탁한 것은 質이 된다.〈명작: ‘맑은 것은 양에 속하고, 탁한 것은 음에 속한다.’〉 知覺과 運動은 양의 작용이고 형체는〈명작: 뼈, 살, 피부, 털〉 음의 작용이다. 氣는 魂이라 하고, 體는 魄이라고 한다. 高誘는 『회남자』注에서 ‘魂은 양의 神이고 魄은 음의 神이다’ 했으니, 神이라 한 것은 形氣를 주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精과 氣가 모이기 때문이다.¹³⁾

사람의 語言動作은 氣이고 神에 속한다. 精血은 魄이고 鬼에 속한다. 發用處는 모두 陽에 속하고 神이다. 氣定處는 모두 陰에 속하고 魄이다.¹⁴⁾

즉 정신 작용은 대체로 魂의 소관사항이고 육체의 생리활동은 주로 魄의 소관사항이다. 이와 같은 혼백의 구분에다 불교의 四大說을 원용하여, 주자는 사람이 비명횡사하면 혼이 흩어지지 않고 여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자의 다음 말을 보자.

族大而強死, 故其氣未散耳.”(59세)

- 12) 『語類』 63:132 “問: ‘世俗所謂物怪神姦之說, 則如何斷?’ 曰: ‘世俗大抵十分有八分是胡說, 二分亦有此理. 多有是非命死者, 或溺死, 或殺死, 或暴病卒死, 是他氣未盡, 故憑依如此. 又有是乍死後氣未消盡, 是他當初稟得氣盛, 故如此, 然終久亦消了. (…)’” 淳(61·70세)
- 13) 『語類』 3:19 “(…) 天道流行, 發育萬物, 有理而後有氣. 雖是一時都有, 畢竟以理爲主, 人得之以有生. 〈明作錄云: ‘然氣則有清濁.’〉 氣之清者爲氣, 濁者爲質. 〈明作錄云: ‘清者屬陽, 濁者屬陰.’〉 知覺運動, 陽之爲也; 形體, 〈明作錄作‘骨肉皮毛’〉. 陰之爲也. 氣曰魂, 體曰魄. 高誘淮南子注曰: ‘魂者, 陽之神; 魄者, 陰之神.’ 所謂神者, 以其主乎形氣也. 人所以生, 精氣聚也. (…)”
- 14) 『語類』 63:130 “(…) 魄屬鬼, 氣屬神. (…) 人之語言動作是氣, 屬神; 精血是魄, 屬鬼. 發用處皆屬陽, 是神; 氣定處皆屬陰, 是魄. (…)”(61·70세)

불교의 地·水·火·風은 대강[粗]을 말한 것이다. 地는 體, 水는 魄, 火風은 魂이다. 그들 역시 저 魂魄 개념을 통찰한 것이다.¹⁵⁾

불교의 四大說은 (...) 사람의 몸의 경우 피부와 살 따위는 地에, 눈물과 침 따위는 水에 속하고, 따뜻한 기운은 火, 움직임은 風이다. 地·水는 陰, 火·風은 陽이다.¹⁶⁾

불교에서 말하는 地水는 魄氣와 같고, 火風은 魂氣와 같다. 또 불교는 말한다: 火風이 먼저 흩어지고 地水가 나중에 흩어질 경우 그 괴로움이 사납지 않으나, 地水가 먼저 흩어지고 火風이 나중에 흩어질 경우 그 괴로움이 사납다.¹⁷⁾

즉 體魄은 地水에, 魂은 火風에 해당된다. 여기서 “火風 즉 정신이 먼저 흩어지고 地水 즉 육체가 나중에 흩어지는 경우”란 예컨대 사람이 대체로 평탄한 삶의 과정을 겪어서 나이가 들어 먼저 정신에 치매 기운이 온 다음에 육체도 점차 쇠약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죽음의 고통도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地水 즉 육체가 먼저 흩어지고 火風 즉 정신이 나중에 흩어질 경우”가 바로 예컨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남에게 살해되는 경우, 육체만 망하고 정신은 말짱 그대로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비명횡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비명횡사하여 정신(즉 ‘혼’)이 초롱초롱 살아 있는 상태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 한을 품고 여귀가 될 수 있다고 주자는 분석하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 주위에 흉흉한 민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비명횡사의 경우인 것이다(주자는 또 여귀의 출현은 바로 이 흉흉한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地水와 火風 중 어느 것이 먼저 흩어지느냐에 따라 죽음의 고통이 다르다고 여긴 불교의 설을 빌어, 주자는 비명횡사한 사람의 영혼이 쉽게 흩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명횡사한 사람은 여귀가 될 수 있고 그 여귀가 일으키는 것이 이른바 ‘怪’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대체로 귀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2할은 역시 그 까닭이 있다”는 주자의 말에 대하여 “주자가 2할 정도 靈怪說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¹⁸⁾ 그리하여 주자 귀신론의 합리적 관점은 일관성을 상실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미신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미우라는 주자의 여귀론은 곧 幽靈論이라고 해석했다.¹⁹⁾

주자의 여귀론이 과연 유령론인가?

15) 『語類』 126:91 “釋氏地水火風, 粗而言之: 地便是體, 水便是魄, 火風便是魂. 他便也是見得這魂魄.”

16) 『語類』 3:31 “(...) 釋氏四大之說 (...) 人之一身, 皮肉之類皆屬地, 涕唾之類皆屬水. 暖氣爲火, 運動爲風. 地水, 陰也; 火風, 陽也.”

17) 『語類』 126:90 “釋氏‘地水火風’之說, 彼所謂地水, 如云魄氣; 火風, 如云魂氣. 又說, 火風先散, 地水後散, 則其疾不暴; 地水先散, 火風後散, 則其疾暴.” (44세 이후)

18) 友枝龍太郎, 앞의 책.

19) 三浦國雄, 앞의 책.

3. ‘괴이현상’에 대한 설명

주자는 “귀신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귀신과 생사의 이치는 결코 불교적 설명이나 세속의 소견과 같은 것이 아니다”(주 2 참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교적 설명이나 세속의 견해”란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어 저승으로 가고 또 산 사람과 똑같은 회노애락의 지각 작용을 행사하며 간혹 이승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일 터이다.²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이른바 일물로서의 귀신이다.

그러나 주자는 이러한 세속적 귀신관, 즉 一物로서의 귀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자에 따르면 귀신은 일물이 아니고, “조화의 자취”요 “두 기의 양능”일 따름이다. 실제로 그는 “요즘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없다”²¹⁾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주자가 귀신 이야기 가운데 2할 정도 인정한 여귀의 성격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귀의 성격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상정할 수 있다.

1) 혼백과 지각

그렇다면 주자가 인정하는 여귀의 성격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과 어떤 점이 다른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귀신도 인간과 똑같은 지각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속적 귀신관의 특징은 바로 귀신의 지각 작용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주자가 말하는 여귀도 지각 작용을 하는가?

유학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精魄은 땅으로 돌아간

20) 張載은 이러한 귀신관(“神姦物怪” 이야기)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즉 “天地의 雷霆草木은 지극히 괴이하나 일정한 형체가 있기 때문에 괴이하지 않은 것이다. 또 사람이 배나 수레를 제작하는 것 또한 지극히 괴이하나 일정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괴이하지 않은 것이다. 요즘 귀신은 그 형체를 볼 수 없다가도 여기고 혹시 보았다고 하더라도 또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바 이것이 첫째로 믿기 힘든 점이다. 또 [귀신은] 無形이면서 有形의 사물로 변이하는 것이라는데 이것은 이치로 유추할 수 없는바 이것이 둘째로 믿기 힘든 점이다. 또 생각해 보면 자연의 雷霆草木은, 사람이 전혀 도모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배·수레 제작 능력 또한 자연이 도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귀신은 無形이라는 점에서는 천지와 같다고 하겠고, 또 귀신이 동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도리어 자연과 인간계의 능력을 겸할 수 있다는 말인가?(范巽의 嘗言神姦物怪, 某以言難之, 謂天地之雷霆草木至怪也, 以其有定形故不怪, 人之陶冶舟車亦至怪也, 以其有定理故不怪. 今言鬼者不可見其形, 或云有見者且不定, 一難信; 又以無形而移變有形之物, 此不可以理推, 二難信. 又嘗推天地之雷霆草木, 人莫能爲之, 人之陶冶舟車, 天地亦莫能爲之. 今之言鬼神, 以其無形則如天地, 言其動作則不異于人, 豈謂人死之鬼反能兼天人之能乎?)”(「性理拾遺」, 『張載集』, 373쪽)라고 논증하였다.

21) 『語類』 3:4 “但無而今世俗所謂鬼神耳.” 이 말은 원래 程子の 입장을 주자가 해명하면서 한 말이지만, 문맥상 주자도 이 말에 동조하고 있다.

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함은 바로 이들 혼기와 정백을 함께 모셔온다는 의미가 있다.²²⁾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사람은 죽으면 혼은 올라가고 백은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두 곳에 각각 知覺이 있다는 것입니까?”

“공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鬼와 神을 합하는 것이 가르침의 지극함이다’ 라고 했다. 제사를 드릴 때, 陽에서 구하고 또 동시에 陰에서도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물며 제사에 또한 報魄의 설이 있음에랴.”²³⁾

이 문답을 살펴보면 죽은 조상의 혼백도 산 사람과 똑같은 지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주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논조의 주장은 이곳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대화는 주자가 44세 이후 어느 시기에 제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아마도 주자의 초년의 발언으로 여겨진다.²⁴⁾

『禮記』「祭義」편의 “氣는 神의 왕성함이고, 魄은 鬼의 왕성함이다”²⁵⁾라는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鄭玄은 “호흡이 출입하는 것이 氣이고, 이목의 감각 작용을 魄이라 한다”고 풀이했다.²⁶⁾ 결국 “호흡 작용은 혼의 작용이고, 시청각 작용은 백의 작용이다”라고 여긴 셈이다. 이것은 송대 이전까지 혼·백의 작용상의 차이를 지적한 것으로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²⁷⁾ 이 기본 정의를 바탕으로 주자는 귀신론 사상을 진전시켜나가면서 혼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魄은 형체의 神이고 魂은 氣의 神이다”라고 했다.²⁸⁾ 이 말만 보면 魄과 魂은 어떤 독립된 神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주자는, “魄은 體에 붙어있고(附), 氣는 魂에 붙어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혼백은 形氣의 精英이다”라고 대답한다.²⁹⁾ 즉 形氣와 독립된 어떤 것이 혼백이 아니라, 형기

22) 『禮記』「郊特牲」“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 故祭, 求諸陰陽之義也”; 『語類』 87:159 “人死時, 魂氣歸於天, 精魄歸於地. 所以古人祭祀, 燎以求諸陽, 灌以求諸陰.”

23) 『語類』 63:128 “問: ‘然則人之死也, 魂升魄降, 是兩處有知覺也.’ 曰: ‘孔子分明言: 合鬼與神, 教之至也. 當祭之時, 求諸陽, 又求諸陰, 正爲此, 況祭亦有報魄之說.’”(44세 이후)

24) 전목은 “『語類』 63의 ‘귀신의 덕’을 논한 여러 조목을 보면 전부 50세 이후 아닌 것이 없고, 더욱이 60세 이후의 것이 많다”(『朱子新學案』 제1책, 三民書局, 臺北, 338쪽)고 밝힌 바 있거니와, 귀신에 대한 핵심 논의는 69~70세 때에 집중되어 있다.

25) “子曰: ‘氣也者, 神之盛也, 魄也者, 鬼之盛也. 合鬼與神, 教之至也.’”

26) “氣, 噓吸出入者也. 耳目之聰明爲魄.”

27) 이상 두 문장은 三浦國雄, 앞의 책, 72쪽 참조.

28) 『左傳』「昭公」7년에 나오는 伯有 고사 중의 “人生始化曰魄, 既生魄, 陽曰魂” 부분에 대하여 杜預 注는 “백은 형이고 양은 神氣이다”라고 했고, 수나라 蕭吉은 『五行大義』「論配藏府篇」에서 “氣의 맑은 것을 神이라 한다. 즉 陽魂이다. 氣의 탁한 것을 鬼라 한다. 즉 陰魂이다”라고 했다(三浦國雄, 앞의 책, 71쪽).

의 정수(액스) 같은 것이 곧 혼백이다. 이것은 육체(형기)와 정신(혼백)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정신이 불멸한다는 서양 중세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정신(혼백) 작용을 살아 있는 육체(형기)의 가장 미묘한 기능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정신은 육체의 작용임(神者形之用)”³⁰⁾을 주장한 범진(范縝, 450~510)의 견해를 연상케 한다.

혼백에 대해 주자는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자어류』의 내용을 보자.

魄은 鬼에 속하고 氣는 神에 속한다. (….) 사람의 語言動作은 氣이고 神에 속한다. 精血은 魄이고 鬼에 속한다. 發用處는 모두 陽에 속하고 神이다. 氣定處는 모두 陰에 속하고 魄이다.³¹⁾

“눈은 體이고 눈의 빛은 魄입니다. 귀는 體이면 무엇이 귀의 魄입니까?”

“청력(能聽者)이 곧 그것이다. 예컨대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아는 것이 모두 그것이다. 다만 ‘知’字를 魄으로 여길 수 없다. 知를 말하면 곧 心이 主가 된다. 心은 다만 知할 수 있을 뿐이다. 달고 쓰고 짜고 싱거움은 혀 위를 지나가야 한다. 老人의 경우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데 이는 魄이 차츰 흠어지려는 것이다.”³²⁾

魂魄은 『예기』 古注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魂은 氣가 出入하는 것이 그것이다. 魄은 精明이 깃든 것이 그것이다.”³³⁾

燈은 魂과 같고 거울은 魄과 같다. 燈은 光焰이 있으니 사물이 오면 곧 태운다. 거울은 비록 비추어 보여주지만 다만 안에 있다. 불과 햇빛은 外影이고 거울과 물은 內影이다. 불과 햇빛은 魂이고 거울과 물은 魄이다. 運用·動作하는 것은 魂이고, 運用·動作하지 않는 것은 魄이다. 動은 魂이고, 靜은 魄이다.³⁴⁾

魂은 불과 같고 魄은 물과 같다.³⁵⁾

- 29) 『語類』 87:161 “ (….) 魄者, 形之神; 魂者, 氣之神. (….)’ 潘問: ‘魄附於體, 氣附於魂, 可作如此看否? 曰: ‘也不是附. 魂魄是形氣之精英.’” (67세)
- 30) “육체는 정신의 바탕(형질)이고, 정신은 육체의 작용이다. 정신과 형질(육체)의 관계는 마치 예리함과 칼날의 관계와 같다. (….) 칼날이 없는데 예리함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늘 어찌 육체가 소멸했는데 정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성립되었는가?(形者神之質, 神者形之用. … 神之於質, 猶利之於刃. … 未聞刃沒而利存, 豈容形亡而神在)” (『神滅論』, 『梁書』)
- 31) 『語類』 63:130 “ (….) 魄屬鬼, 氣屬神. 如析木煙出, 是神; 滋潤底性是魄. 人之語言動作是氣, 屬神; 精血是魄, 屬鬼..(….)” 淳(61·70세)
- 32) 『語類』 87:161 “ (….) 問: ‘眼體也, 眼之光爲魄. 耳體也, 何以爲耳之魄?’ 曰: ‘能聽者便是. 如鼻之知臭, 舌之知味, 皆是. 但不可以’ 知’字爲魄, 纔說知, 便是主於心也. 心但能知, 若甘苦鹹淡, 要從舌上過. 如老人耳重目昏, 便是魄漸要散.’ (….)” (67세 이후)
- 33) 『語類』 87:162 “魂魄, 禮記古注甚明, 云: ‘魂, 氣之所出入者是; 魄, 精明所寓者是.’”
- 34) 『語類』 87:163 “ (….) ‘燈似魂, 鏡似魄. 燈有光焰, 物來便燒; 鏡雖照見, 只在裏面. 又, 火日外影, 金水內影; 火日是魂, 金水是魄.’ 又曰: ‘運用動作底是魂, 不運用動作底是魄.’ 又曰: ‘動是魂, 靜是魄..’” (69세)
- 35) 『語類』 3:21 “ (….) 魂如火, 魄如水.” (62세 이후)

精은 魄이다. 耳目의 精明이 魄이다. 氣는 魂이다. 口鼻의 嘘吸이 魂이다. 이 둘은 합하여 사람이 만들어진다. 精虛魄降하면 氣散魂遊하여 마구(아무데나) 흩어져 간대[無不之]. 魄은 鬼, 魂은 神이다.³⁶⁾

魂은 陽이고 魄은 陰이다. 따라서 魂이 다한 것을 ‘흩어진대[散]’ 하는데, 흩어져 올라가는 것이다. 魄이 다한 것을 ‘내려간대[降]’ 하는데, 떨어져(굴복하여) 내려가는 것이다. 古人은 그것을 徂落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의미이다.³⁷⁾

주자의 혼백 논의 가운데 주목할 점은 주자가 “動하는 것은 魂이고, 靜하는 것은 魄이다” “혼은 動을 주관하고 백은 靜을 주관한다.”³⁸⁾고 보고, 우리의 정신작용 중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혼의 일이며, 기억하고 변별하는 것은 백의 일이다.”³⁹⁾라는 새로운 주장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생각과 계획은 적극적 動的인 영역으로 보아 ‘혼’의 소관사항으로, 기억과 변별 작용은 과거에 습득하여 머리 속에 저장해둔 내용을 되살리거나 구분하는 비교적 靜的인 영역으로 보아 ‘백’의 소관사항으로 여긴 것이다.

이제 지각에 대한 주자의 사상을 살펴보자.

“사람이 죽으면 知覺⁴⁰⁾도 곧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각은 흩어지는[散] 것이 아니고, 다하는[盡] 것이다, 氣가 다하면 지각도 다한다.”⁴¹⁾

‘지각’은 기능이므로 흩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육체적 기운(생명유지력)이 소진하면 지각 능력도 다한다는 것이다. 주자에 따르면, 사람이 생기는 것은 精·氣가 모인 결과이다. 즉 생명체는 오직 氣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언젠가는 氣가 盡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 ‘盡’이란 의사들이 말하는 ‘음양이 升降하지(상호작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 같은 것이고, ‘盡’하면 혼기는 하늘로, 백기는 땅으로 돌아가 죽는다.⁴²⁾

그런데 인간 삶에서의 혼과 백의 역할에 대해, 주자는 “혼은 지각을 주관하고 백은 기억을 주관한다”, “사람의 언어와 동작은 氣이고 神(혼)에 속한다. 精血은 魄이고 鬼에 속한

36) 『答呂子約』4, 44세, 『주희집』, 2268쪽. “精, 魄也; 〈耳目之精明爲魄.〉 氣, 魂也, 〈口鼻之嘘吸爲魂.〉 二者合而成物. 精虛魄降, 則氣散魂遊而無不之矣. 魄爲鬼, 魂爲神.”

37) 『답여자약』9, 45세, 『주희집』, 2280쪽. “魂陽而魄陰, 故魂之盡日散, 〈散而上也.〉 魄之盡日降, 〈降而下也.〉 古人謂之徂落, 亦是此義.”

38) 『語類』3:28 “動者, 魂也; 靜者, 魄也.” 『語類』3:24 “魄主靜, 魂主動.”

39) 『語類』3:34 “人之能思慮計畫者, 魂之爲也; 能記憶辨別者, 魄之爲也.” (69세 이후)

40) 이때의 지각은 ‘혼’의 소관 사항으로서의 지각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지각, 즉 정신의 각종 인식 능력(기억도 포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 『語類』63:132.

42) 『語類』3:19 “(…) 人所以生, 精氣聚也. 人只有許多氣, 須有箇盡時; 〈明作錄云: ‘醫家所謂陰陽不升降是也.’〉 盡則魂氣歸於天, 形魄歸於地而死矣. (…)” (59세 이후)

다. 發用處(능동적 작용을 하는 곳)는 모두 陽에 속하고 神(혼)이다. 氣定處(기능이 이미 정해진 곳)는 모두 陰에 속하고 魄이다. 知識處(알고 판단하는 곳)는 神(혼)이고 記事處(일을 기억하는 곳)는 魄이다”⁴³⁾라고 하였다. 요컨대 “운동·동작하는 것은 魂이고, 운동·동작하지 않는 것은 魄이다”, “動은 魂이고, 靜은 魄이다”⁴⁴⁾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혼·백의 두 영역으로 이분한 것처럼 보인다.⁴⁵⁾ 그러나 주자는 일도양단적 구분은 반대한다.⁴⁶⁾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혼·백이 함께 작용해야 ‘지각’도 성립하고 ‘기억’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혼백에 대한 주자의 최종 견해이다. 즉 그는 70세 때 이렇게 말했다.

陰은 보관하고 수용하는 일(藏受)을 주관하고 陽은 운용해 내는 것(運用)을 주관한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魄이 보관하고 수용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하여 표출하는 것은 魂이다. 이 둘은 본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또 능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魄이지만, 기억을 끌어내는(發出해 내는) 것은 魂이다. 능히 지각할 수 있는 것은 魄이지만, 지각을 끌어내는 것은 魂이다. 비록 각각 음·양에 나뉘어 속하지만, 음양 속에 또 각각 음양이 있는 것이다.⁴⁷⁾

즉 魂만 있거나 魄만 있어서는 지각작용도 불가능하고 기억작용도 불가능하다. <지각-혼의 소관: 기억-백의 소관>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기각된다. 혼과 백이 긴밀히 의존해 있어야 지각작용이나 기억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혼과 백이 함께 있어야 지각과 기억 등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혼·백이 결합하면 사람이 되었다가, 혼·백이 분리되면(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흩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주자의 논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易』「繫辭」의 “精氣

43) 『語類』 63:130 “人之語言動作是氣，屬神；精血是魄，屬鬼。發用處皆屬陽，是神；氣定處皆屬陰，是魄。知識處是神，記事處是魄。”

44) 『語類』 87:163 “運用動作底是魂，不運用動作底是魄。” 又曰：“動是魂，靜是魄。”(69세)

45) 혼과 백을 대비하여 설명할 때 그 대조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魂] 陽·氣·動·運動·呼吸·思慮·計劃 → 神

[魄] 陰·精·靜·形體·知覺·記憶·辨別 → 鬼(모두 『語類』에 언급됨)

46) 흔히 “코와 입의 호흡은 기이니 혼에 속하고 눈과 귀의 시청각작용은 백에 속한다”고 구분되지만, 주자는 “혼 안에 백이 있고 백 안에 혼이 있다(魂中求魄，魄中求魂)”고 보고, “코가 냄새맡고 입이 맛을 아는 것은 백이 아니겠으며, 눈과 귀 속에도 煖氣가 있으니 혼이 아니겠는가? 몸 안의 모든 부분의 작용이 다 그렇다”(然既周流充滿於一身之中，則鼻之知臭，口之知味，非魄耶? 耳目之中皆有煖氣，非魂耶? 推之遍體，莫不皆然.)라고 말하고 있다(『答梁文叔』4, 『주희집』, 2102쪽).

47) 『語類』 87:160 “(…) 陰主藏受，陽主運用。凡能記憶，皆魄之所藏受也，至於運用發出來是魂。這兩箇物事本不相離。他能記憶底是魄，然發出來底便是魂；能知覺底是魄，然知覺發出來底又是魂。雖各自分屬陰陽，然陰陽中又各自有陰陽也。”

爲物, 遊魂爲變” 구절에 대해, 주자는 “精은魄이고氣는魂이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 사물을 이루었다가, 精이 허하고 백이 내려가게 되면[精虛魄降], 기는 흩어지고 혼은 사방으로 떠나간다[氣散魂遊而無不之矣].魄은鬼라면魂은神이다”라고 풀이했다.⁴⁸⁾

즉 그는 “精氣爲物”을 “精·氣가 모여서 사물이 된다”고 풀고, 정은 백, 기는 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遊魂爲變”은 “혼백이 분리되어 흩어지는 것을 함축한다”고 풀이했다. 특히 후자는 주자의 의도가 농후하게 반영된 풀이이다. “정기위물, 유혼위변”에 대해 예컨대 현대학자 高亨은 이렇게 설명한다.

정기는靈氣와 같다. 영기는 실제 사물에 붙지 않고 그 스스로靈物이 되는바[“精氣爲物”], 이것이神이다. 유혼은 사람의 몸을 떠난 것으로 사람이 변화한 것인바[“遊魂爲變”], 이것이鬼이다.⁴⁹⁾

고형에 따르면 ‘정기위물’은神에 대한 설명, ‘유혼위변’은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주자의 해법의 초점은, ‘정기위물’을 혼백의 결합으로, ‘유혼위변’을 혼백의 분리로 풀이한다는 데에 있다. 주자와 고형 중 누가 옳든, 아무튼「계사전」의 이 말은 반드시 주자처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의 풀이에서 주자가 “기는 흩어지고 혼은 사방으로 떠나간다”고 말한 구절에 대해, 당시의 학자인 呂子約이, “사방으로 흩어져간다” 함은 “이미 수렴된[屈]기가 여전히 천지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라고 묻고, 또 “기가 모이면 탄생하는 것이고 기가 다하면(소진되면) 죽는다는 것이면 대체 무엇이 ‘유혼’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정자를 인용하며) “혼기가 하늘로 돌아간다 함은 흩어져 사라진다[消散]는 의미이며, 遊魂 역시 그런 의미이다”라고 대답했다. 요컨대 여자약은 ‘사방으로 흩어져간 혼’이나 ‘유혼’(즉 ‘떠돌아다니는 혼령’)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은 것인데, 주자는 한마디로 그런 존재를 인정치 않고⁵⁰⁾ 유혼 역시 “흩어져 사라진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있다.⁵¹⁾

고형의 해석에서도 보듯이 “유혼위변”의 표현은 꼭 “혼과 백의 분리”를 함축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주자는 “변화가 생기면 혼백은 서로 분리된다”는 의미로 풀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구절이 혼백의 분리를 함축한다면 왜 혼만 언급되고 백은 빠졌는가? 라는 반론

48) 「答呂子約」, 『주희집』, 2268쪽. “精,魄也.〈耳目之精明爲魄〉氣,魂也.〈口鼻之嘘吸爲魂〉二者合而成物.精虛魄降,則氣散魂遊而無不之矣.魄爲鬼,魂爲神.(…)”(44세)

49) 高亨, 『周易大傳今注』(齊魯書社, 1979), 512쪽. “精氣猶靈氣也.靈氣不附於實物,而自成爲靈物,是爲神.遊魂離去人身,而成爲人之變化,是爲鬼.聖人明於此,故知鬼神之情狀.”

50) “유혼위변”을 “기가 흩어져 귀신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한 것에 대해서, 주자는 “옳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答程允夫」9, 『주희집』, 1938쪽).

51) 이상은 『朱熹集』, 2272~3쪽. “‘魂者其氣也,氣散魂遊而無不之’,所謂無不之者,已屈之氣尙有在於天地之間邪?抑否也.然氣聚則生,氣盡則死,何者爲遊魂?…” “程子曰:魂氣歸于天,消散之意,遊魂亦是此意.蓋離是體魄,則無所不之而消散矣.…”(45세)

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설명하기를 “유독 ‘유혼’ 만 언급하고 백을 언급치 않은 만큼, (혼이) 백과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⁵²⁾고 하였다. 즉 주자가 억지로 강조하여 혼·백의 분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죽음 이후는 혼백이 분리된 것이고 혼백이 분리되면 지각 등 모든 정신작용은 불가능해진다).

여하튼 주자의 설명에 따르면, 제사감격의 대상인 조상의 정신혼백이든, 각종 變怪를 일으키는 여귀이든 그것의 혼백은 분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지각작용의 측면에서, 주자가 생각하는 조상의 혼백과 여귀는 그 성격이 세속의 귀신과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자는 혼백이 결합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혼백이 분리되면 죽음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각과 기억 등 인간의 모든 정신 작용 또한 혼·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혼백이 분리된 조상의 혼령과 여귀는 지각 작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인 셈이다.

따라서 주자가 인정한 여귀는 세속에서 말하는 여귀와 사실상 다르다. 따라서 여귀가 일으킨다는 이른바 ‘괴이현상[怪]’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이하에서 곧 다룬다.

2) ‘靈’의 문제

주자의 귀신론에서 또 검토해야 할 주제가 그가 말한 ‘靈’의 성격이다. 『중용장구』에서 그는 “귀는 음의 영이고, 신은 양의 영이다(鬼者陰之靈也, 神者陽之靈也)”라고 하였다. 또 『語類』에서도 “귀신은 마치 기 이면의 神靈스러움 같은 것이다”⁵³⁾ “魄은 形의 神이고 魂은 氣의 神이다. 혼백은 形氣의 精英이므로 靈이라고 말한 것이다”⁵⁴⁾라고 하였다.

강광휘는 이런 측면에 주목하여 주자의 귀신론을 ‘氣靈論’이라고 개괄했다. 그리하여 “기령론의 특징은, 물질적인 氣로 세계상의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고 인격신 관념의 배제를 견지하면서도, 유자가 참여하는 각종 제사활동에 이론 근거도 제공했다는 데 있다. 기령론 사상은 비교적 복잡한데 유물론적 성분도 있고 범신론과 종교 미신적 색채도 있다”고 말했다(강광휘, 370쪽). 또 도모에다 또한, 佐藤直方이 주자의 『중용장구』의 표현에 대해 “주자가 말한 靈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한다. ‘영’은 귀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말한다”라고

52) 『語類』 74:85 “精氣爲物, 是合精與氣而成物, 精魄而氣魂也. 變則是魂魄相離. 雖獨說‘遊魂’, 而不言魄, 而離魄之意自可見矣.”(65세 이후)

53) 『語類』 3:8 “問: ‘鬼神便只是此氣否?’ 曰: ‘又是這氣裏面神靈相似.’”(70세)

54) 『語類』 87:161 “魄者, 形之神; 魂者, 氣之神. 魂魄是形氣之精英, 謂之靈. 故張子曰: ‘二氣之良能.’ 二氣, 卽陰陽也. 良能, 是其靈處……”(67세 이후) ※ 形氣: 중화서국본은 ‘神氣’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따라 수정함.

풀이한 것에 동의하고 있다(友枝, 259쪽).

그러나 주자에게 있어서 ‘영’은 결코 ‘귀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따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주자는 “혼백이 영이다”라고 말한 『語類』 같은 곳(87:161)에서 “두 기의 양능” 할 때의 “양능”이 곧 귀신의 靈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귀신이 음양의 ‘영’ 이다 함은, 一氣가 굴신왕래하는 것을 지칭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다”⁵⁵⁾는 말에 주자는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귀신이 영이다’ 함은 음양의 양능, 즉 삼라만상의 조화가 변화무쌍하고 불가해한 영역임을 일컫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 주자는 애초에 그의 우주론에 있어서 어떤 영피성을 염두에 두고 ‘귀신’ 개념을 원용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마치 주자가 『대학』의 明德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虛靈”⁵⁶⁾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자에 따르면 “귀신은 음양의 消長일 뿐이므로”(『어류』 3:6), (우주론에서) ‘귀’·‘신’ 두 자를 없애고 ‘음’·‘양’ 두 자로 대체할 수도 있다(『어류』 63:112). 그런데 귀신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까닭은⁵⁷⁾ 그 두 글자가 氣의 굴신왕래, 즉 자연조화 현상의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않는 신비와 그 변화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측면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귀신의 성격은 기의 본래적 기능과 작용[良能功用]에 있다는 것이다.⁵⁸⁾

3) ‘怪’의 성격

그렇다면 ‘怪’의 성격을 주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논하기 앞서, 귀신 문제를 대하는 주자의 기본적 태도를 한 번 검토해 보자. 주자는 말하기를, “못 理를 명확히 간파하면 귀신에 관한 의혹도 자연히 풀린다”, “일상의 삶의 도리를 투철히 이해하게 되

55) 『語類』 87:161 “問: ‘鬼神陰陽之靈, 不過指一氣之屈伸往來者而言耳. (…)’ 曰: ‘固是.’”(67세)

56) 『大學章句』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 “허령”은 예컨대 『盡心說』에서 “하늘은 커서 바깥이 없거니와 성은 하늘의 온전한 바를 품수받았기에 사람의 본심은 그 제가 확연하여 또한 한량이 없는 것이다(天大無外, 而性稟其全, 故人之本心, 其體廓然, 亦無限量)”(『주회집』, 3535쪽)라고 한 표현 등을 지칭하는 듯하다. 또 “영”의 의미는 “이 마음은 영하니 그 가운데 리를 깨닫는 것이 도심이고,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인심이다(此心之靈, 其覺於理者, 道心也; 其覺於欲者, 人心也)”(『주회집』 2862쪽)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다.

57) 이와 관련하여 유인희는 “음양은 우주의 모든 생성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이론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그러한 생성변화의 방식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個物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은 변화생성에 대한 本體論的 설명개념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현상계의 存在者들의 生滅의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朱子哲學과 中國哲學』, 汎學社, 1980, 262쪽).

58) 『語類』 63:112 “論來只是陰陽屈伸之氣, 只謂之陰陽亦可也. 然必謂之鬼神者, 以其良能功用而言也. 今又須從良能功用上求見鬼神之德, 始得. (…)”(62세 이후)

면 귀신의 理는 저절로 이해된다”⁵⁹⁾ “귀신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형체도 그림자도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해할 필요 없다.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귀신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통찰하는 바가 있게 된다”⁶⁰⁾라고 하였다. 즉 주자는 귀신에 관한 문제는 그 有無를 논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관건임을 말하고 있다.⁶¹⁾

이미 말했듯이 주자는 세속의 귀신이야기 중 2할 정도는 인정했고 제사에서 감격하는 조상의 기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그런 영역>을, 주자가 <설명할 수 없는, 영괴의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그 2할의 경우에도 그 까닭이 있다(二分亦有此理)”(주 12 참조)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주자가 귀신론에서 ‘2할 정도 영괴성을 인정했다’”, “주자 귀신론에는 2할 정도 ‘괴’가 잔류하고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면(예컨대 友枝, 279, 282쪽), 이는 “분명 그 까닭이 있다”고 말한 그 ‘까닭’의 내용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 2할에는 무슨 까닭(理)이 있었는가? 그 2할에서 이치(까닭)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괴이하게 여겨지겠으나, 이치를 찾으면 그것은 더 이상 괴이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⁶²⁾ 주자는 설명하기를, “귀신불” 따위(저 2할)는 전부 “아직 미처 흩어지지 않은 기[未散之氣]이니 두려워할 게 없고[不足畏]”⁶³⁾ “괴이하게 여길 필요 없는[無足怪]”⁶⁴⁾ 것들이라고 하였다.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괴’가 되고 ‘괴’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變理⁶⁵⁾일 뿐이다. 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59) 『語類』 3:3 “或問鬼神有無。曰：‘(…) 須於衆理看得漸明，則此惑自解。(…) (人且理會合當理會底事，其理會未得底，且推向一邊。) 待日用常行處理會得透，則鬼神之理將自見得。(…)’ ※ 63:133 “若是見理明者，自能知之。”

60) 『語類』 3:1 “因說鬼神，曰：‘鬼神事自是第二著。那箇無形影，是難理會底，未消去理會，(且就日用緊切處做工夫。子曰：未能事人，焉能事鬼！未知生，焉知死！此說盡了。此便是) 合理會底理會得，將問鬼神自有見處。(…)’ (61·70세)

61) 이런 주자의 태도는 “형이상학적 주제 관련 물음은 대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라는 서양 언어철학의 모드를 연상케 한다.

62) 마치 어떤 질병의 정체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병은 “怪疾”이지만, 정체가 밝혀지면 더 이상 괴질이 아닌 경우와 흡사하다고 하겠다.

63) 『語類』 63:112 “鬼火皆是未散之物，如馬血，人戰鬥而死，被兵之地皆有之。某人夜行淮甸間，忽見明滅之火橫過來當路頭。其人頗勇，直衝過去，見其皆似人形，髣髴如廟社泥塑未裝飾者。亦未散之氣，不足畏。(…)”

64) 『語類』 3:74 “或言鬼神之異。曰：‘世間亦有此等事，無足怪。’”

65) 주자는 “理之變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뢰 천둥 지진의 타격에는 정말로 귀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眞有鬼物]”는 질문에, 주자는 “배우는 사람은 옹당 正理에 대해 견식이 수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변리[理之變者]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깨우칠 수 있다. 만약 변리가 먼저 마음 속에 정견으로 자리잡고 있게 되면 정리를 끝내 깨우치지 못하고 만다”고 대답했다(『答黃商伯』, 69세, 『주희집』, 2225쪽).

만약 正理를 논한다면, 나무에 홀연히 꽃잎이 피어나는 것 따위가 곧 조화의 자취이다. 또 공중에서 갑자기 번개·천둥·비·바람이 생기는 것 역시 모두 조화의 자취이다. 다만, 사람이 항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괴이하다고[怪] 여기지 않는다. 갑자기 귀신의 울음소리나 귀신불 따위를 대하게 되면 괴이하다고 여긴다. 그것 또한 조화의 자취이지만, 正理가 아니기에 怪異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원문은 주 66 참조)

그러면서 주자는 괴이한 것의 예로, 『孔子家語』에 나오는, “산의 요괴인 기망랑, 물의 요괴인 용망상, 흙의 요괴인 번양” 따위를 들었다. 위에서 말한 여귀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은 기가 뒤섞이고 어그러져 생겨난 것들이긴 해도 이치가(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니, 전적으로 없다고 여기면 안 된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것은 正理이다. 때로 갑자기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운 경우가 있는데 어찌 그런 이치가 없다고 하겠는가! 다만 정상적 이치가 아니므로 괴이하다고 말할 것이다.⁶⁶⁾

주자의 경우 2할의 ‘怪’의 성격은 말하자면, “여름에 닥친 추위, 겨울에 생긴 따뜻한 날씨”와도 같은 것이다. 그야말로 “두려울 것 없고[不足畏]” “괴이할 것 없는[無足怪]” 현상들일 뿐이다.⁶⁷⁾ 다만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요컨대 ‘정리’의 귀신뿐 아니라 ‘변리’의 귀신 또한 “두려울 것 없고” “괴이할 것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자는 그렇게 많은⁶⁸⁾ 공을 들여 치밀하고 세심한 논의를 전개했다고 보아야 온당할 것 같다.

4. 맺음말

주자는 여러 곳에서 누누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귀신은 “똑 같은 氣이고” “같은 모습임” [鬼神卽一樣](『어류』 98:29)을 강조했다. 또 주자가 “귀신은 조화의 자취이다”, “귀신은 이기의 양능이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모든 부류의 귀신을 수렴하려고 한 것은 분명 제사감격 때의 조상의 혼령이든, 괴이현상을 일으키는 여귀이든 거기에 어떠한 영괴성도 인정치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66) 『語類』 3:19 “若論正理, 則似樹上忽生出花葉, 此便是造化之跡. 又加空中忽然有雷霆風雨, 皆是也. 但人所常見, 故不之怪. 忽聞鬼嘯·鬼火之屬, 則便以爲怪. 不知此亦造化之跡, 但不是正理, 故爲怪異. / 如家語云: ‘山之怪曰夔夔, 水之怪曰龍罔象, 土之怪曰羆羊.’ / 皆是氣之雜揉乖戾所生, 亦非理之所無也, 專以爲無則不可. 如冬寒夏熱, 此理之正也. 有時忽然夏寒冬熱, 豈可謂無此理! 但既非理之常, 便謂之怪. (…)”

67) 주자에 따르면 ‘괴’를 야기하는 여귀는 ‘비명에 죽은 사람’, 즉 사연(까닭)이 있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괴’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몰라도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8) 『語類』만 보더라도 단일 주제에 대해 귀신의 경우처럼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없다.

주자가 분석한 ‘혼백과 지각’의 이론에 따르면 조상의 정신혼백이나 여귀는 사람과 똑같은 지각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주자는 예컨대 제사 음식을 더럽힌 어떤 여귀 이야기(주 9) 따위를 마치 사실처럼 인정하고 있고, 『좌전』에 나오는, 백유가 여귀가 되어 양화를 일으킨 고사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각 작용이 없는 이런 여귀는 대체 어떻게 양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악인이 천지의 벼락을 맞는 것처럼(성리학자의 설명), 일종의 자동 반사 작용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주자의 경우 정말로 그런 의미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자가 왜 여귀 등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쪽이 아니라 2할 정도 인정하는 쪽을 선택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여귀의 양화가 가지는 도덕적 특성 때문이다. 주자가 제시한 대표적인 여귀의 경우는 다음 이야기에 나온다.

漳州에서 어떤 송사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죽여 암매장한 사건이었다. 그 후 괴이한 일(귀신의 해코지)이 생겼으나, 사건의 전말이 발각되자 즉시 괴이한 일이 없어졌다. 이 사건은(죄 지은 사람이) 임금께 상소하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마침내 해당 관료에 상황을 말씀드린 결과 임금이 특별히 답을 한 경우였다. 그러나 그 후 부인은 참수되었고, 부인과 간통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로써 보건대 형벌 사건의 이면의 이와 같은 일은 만약 그 죄를 밝혀 목숨을 보상하지(賞命: 살인자를 죽임) 않는다면, 죽은 자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⁶⁹⁾

되값음(도덕적 불균형의 시정)이 이루어져야 양화의 괴이 현상은 중단이 된다는 논조이다. 주자가 인정한 여귀는 대체로 이런 부류의 것들이다. 또 그가 전쟁터의 귀신불의 존재를 인정하고(『어류』 3:19), 억울하게 죽은 효부와 가뭄을 연결시킨 것⁷⁰⁾도 정치가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⁷¹⁾

69) 『語類』 3:43 “如漳州一件公事: 婦殺夫, 密埋之. 後爲崇, 事才發覺, 當時便不爲崇. 此事恐奏裁免死, 遂於申諸司狀上特批了. 後婦人斬, 與婦人通者絞. 以是知刑獄裏面這般事, 若不與決罪償命, 則死者之必不解.” (62세 이후)

70) 『語類』 90:11. “가령 孝婦를 죽이자 그 때문에 하늘이 가뭄을 내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원래 그 한 사람이 죽히 天地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71) 정자와 주자를 비롯한 많은 성리학자들이 인정한 여귀 이야기로는, 伯有가 정치적 문제로 비명에 죽은 뒤 그가 여귀가 되어 나타나 박해자들에게 복수를 계속했다는 『좌전』의 백유 고사라고 하겠다. 백유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횡사는 가족이나 그 집단에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분위기는 마침내 여귀 출현 이야기를 낳았고 그 여귀의 양화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커다란 정치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산이 백유의 후사를 세워주고 제사를 지내게 함(정치적 복권)으로써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자 더 이상 여귀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둘째, 여귀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불교의 윤회설을 부정하는 주자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자에 따르면 “사람은 병들어 마침내 소진되면 그 기는 흩어진다.” 그런데 “간혹 형을 받거나 갑자기 죽게 되어(즉 제명에 죽지 못하여) 기가 멩쳐져 아직 흩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여귀이다. 그렇지만 이 여귀도 “결국은 똑같이 흩어지게 된다.”⁷²⁾

즉 주자는, 이승에서 잠시 문제를 일으키는 여귀는 인정하지만 내세에 다시 태어나면서 윤회를 계속하는 그런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윤회설을 비판하여 “불교는 사람은 죽으면 귀(鬼)가 되었다가 그 귀가 다시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천지 간은 항상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가는 것일 뿐이고, 낡고 낡은 조화를 거치지 않는 것이 되니, 결코 그런 이치는 없다”(주 3)고 말했다. 그는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어떤 존재를 ‘귀’라고 이해하고, 그런 윤회의 주체자는 명확히 부정했던 것이다.⁷³⁾

요컨대 여귀이든 조상의 기이든 “결국은 흩어진다”는 것이 주자의 귀신론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철학 체계에서 보면 저승은 없으니 여귀가 야기하는 변괴의 場은 저승이 아닌 이승이며, 그 변괴 또한 까닭이 있으니 ‘괴’가 아닌 變理인 것이다.

몸이 쇠약해져 병으로 죽은 사람의 경우는 기가 모두 소진되어 죽은 것이니 어찌 다시 멩쳐져 요괴가 되겠는가! 그러나 제 명에 죽지 못한 사람도 오래되면 역시 흩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 밀가루를 반죽하여 풀을 만들 때 중간에 풀어지지 않은 작은 덩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오래되면 점점 풀어져 흩어지지 않던가! (...) 천하 만사만물은 예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음양의 消息·屈伸일 뿐이다.⁷⁴⁾

주자는 “자신이 귀신의 情狀을 안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귀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주자에 따르면 “귀신의 이치는 마음의 이치이므로”(『語類』 3:61) 그 논리대로라면 백유라는 여귀의 양화는 흥흥한 민심의 반영이었으며, 그러한 민심을 달랜 자산의 행위는 정치적 압투로 희생된 사람이 당한 도덕적 불균형을 시정해준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자산이 후사를 세우 여귀를 달래자 양화가 그쳤다”는 설명을 매우 좋아하였다(『語類』 3:19, 43, 44).

72) 『語類』 3:44 “問：‘伯有之事別是一理，如何？’ 曰：‘是別是一理。人之所以病而終盡，則其氣散矣。或遭刑，或忽然而死者，氣猶聚而未散，然亦終於一散。’ 3:45 “若是爲妖孽者，多是不得其死，其氣未散，故鬱結而成妖孽。” ※ 또 주자는 “대체로 제 명에 죽지 못했으므로 강한 기가 흩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요점은 오래되면 흩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多是不得其死，故強氣未散。要之，久之亦不會不散)”(3:43)라고 설명한다.

73) 사후에 영속하는 어떤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은 제사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자의 제사감격설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결국은 흩어지지만, 곧바로 완전히 흩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제사에 ‘감응하여 오는’ 이치가 있다”, “제사를 지내는 자는 그의 자손이므로 결국 같은 기여서 감응하여 소통하는 이치가 있다.” 그런데 주자는 항상 “그렇지만 이미 흩어진 것이 다시 모이는 것은 아니다”(『語類』 3:19), 혹은 “결국은 흩어진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또 주자는 조상의 정신혼백이 “허공 속에 一物처럼 존재하다가 흠향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語類』 3:62)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74) 『語類』 3:45 “若是爲妖孽者，多是不得其死，其氣未散，故鬱結而成妖孽。若是尙羸病死底人，這氣消耗盡了方死，豈復更鬱結成妖孽！然不得其死者，久之亦散。如今打麵做糊，中間自有成小塊核不散底，久之

여기서 말하는 음양의 消息屈伸이 곧 귀신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항상 변화 속에 있고 그 변화의 두 측면이 귀·신이다(귀신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 발전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어일 따름이다). 이와 같은 음양의 이치를 초월해 존재하는 것 ('supernatural beings')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주자는 불교와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인정하지 않는다.⁷⁵⁾ 말하자면 그것들은 음양의 이치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자는 여귀가 있다고 말했으나, 괴이한 것(초자연적인 존재)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소식굴신하는 음양의 이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始終과 死生은 循環에 대해 논한 것이고, 精氣와 鬼神은 聚散에 대해 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다만 陰陽 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⁷⁶⁾

漸漸也自會散. (….) 天下萬物萬事自古及今, 只是箇陰陽消息屈伸.”

75) 즉 1) 세상의 만사만물은 음양의 소식굴신일 뿐이니, 음양의 소식굴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불교와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음양의 소식굴신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따라서 불교와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없다.

76) 『語類』 74:79 “始終死生, 是以循環言; 精氣鬼神, 是以聚散言, 其實不過陰陽兩端而已.” (70세)